



금수강산

4

2025년

루게 제 428호 월간



표지: 을밀대의 봄

평양의 명승 모란봉의 을밀대에 봄이 왔다.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뛰어난 을밀대의 봄
경치는 예로부터 《을밀상춘(을밀대의 봄맞이)》
이라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사진 김성철

2 || 후대들을 미래의 주인공들로

승리와 영광의 80년

5 || 당대렬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6 || 항일무장력을 강력한 혁명대오로 꾸리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8 || 보금자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

10 || 승용차

수필

12 || 만경봉의 무지개

13 ||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학

14 || 교육진흥은 전면적국가부흥의 근본담보

15 || 위민헌신의 나날에

16 || 계속혁신, 연속도약의 기세드높이

고향소식

20 || 지방중흥의 첫 실체가 일떠선 성천군

24 || 꿈과 희망을 꽃피우는 학생들

수필

27 || 우선권에 대한 생각

28 || 조선어린이후원협회



30 ||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여

32 || 하나의 준칙을 간직하고

34 || 《조선민속학총서》(전 50권)가 새로 나왔다

대담

35 || 축구계의 기성관념을 깨버린 우리 나라 선수들

38 || 금별상수상자 전일청

40 || 옷차림문화를 높아가는 문명수준에 맞게

42 || 기술상을 받은 요리사

43 || 백두산들쭉술

조국방문

44 || 소중한 나날들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46 || 두각을 나타낸 모래그림창작가

편지

48 || 상봉의 그날을 그림니다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 학생 조국방문단
성원들의 문학작품중에서

49 || 내가 받은 꽃다발

민족의 향기

50 || 민족의 전통유산 화침료법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강서세무덤

력사이야기

53 || 흙보살이 고기를 먹다

54 || 모란봉의 봄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평양대동문인민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72년 9월

후대들을 미래의 주인공들로

후대들을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조국에서는 언제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만 보더라도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이 천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라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로동계급의 당과 정부가 발전의 모든 로정, 모든 단계마다에서 항시적으로 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갈 때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이룩될수 있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그 어느 시기에나 우선적인 문제로 중시되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도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체를 세워주시였고 해방후에는 새 조국건설의 것처럼 어려운속에서도 혁명인재육성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종합대학부터 창설하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는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과 교원들을 소환하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온 나라에 학교부터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편이여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육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그이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불멸의 교육대강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조국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교 1984년 7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교육체제관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계기로 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푼의 자금이 것처럼 귀하던 고난의 시기 국가의 교육시책비를 해마다 늘이도록 하시였으며 수많은 교육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교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어온 긍지높은 행로가 력사로만 남아있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공인될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 교육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2012년 6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으며 2012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초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며 이를 첫째 의안으로 토의하도록



가렬서절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대학생들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종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당대렬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신 그이이시다.

사실 조국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 학제를 1년 더 늘여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교육체제를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일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위한 역사적사변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찰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교육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

적, 국가적인 조치들을 편이여 취하도록 하시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어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를 펼쳐주시고 교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안겨주시었으며 평양건축대학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병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명예총장이 되어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겠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었다.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학생들을 주체조선의 유능한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은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신 최상최대의 평가에도 조국의 만년대계인 교육사업을 맡고있는 교원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심이 비껴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계적발전추세와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새 교수방법들이 널리 창조 도입되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 신발과 학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워졌다.

지난해에는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 공하는 비상체계가 가동되었다.

미래사랑의 힘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전진방식이며 활동방식이다.

우리 인민은 중요당회의들에서 자기 자식들의 전도와 직결된 교육문제가 어김없이 취급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통하여 당의 교육중시사상의 고마움을 뜨겁게 체감하며 가까운 앞날에 더욱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글 연옥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의 성격은 구성성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사상, 투쟁목적, 조직원칙 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되는 까닭에 당안에 농민성분이 좀 많아져도 당의 성격이 변할수 없다고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조성된 현정세는 광범한 대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세워 당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킬 임무를 제기하고있기때문에 로동자비율만 따질것이 아니라 근로인민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준엄한 전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1952년 5월 전화의 불길속을 헤치시며 평안남도 대동군 원화리(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세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고 6월에는 당시의 룡천군 하장리당세포총회를 지도하시었으며 락원기계제작소(당시)를 찾으시여서는 주철직장당세포총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 하장리당세포총회를 지도해주시며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곤난을

뚫고나가는것이 오늘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이며 이런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고 하신 가르치심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전쟁시기 맨손으로 수류탄을 생산하고 전후시기에는 손으로 피대를 돌려 양수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세포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한 이야기는 우리 당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이후 수많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가진 대중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반미성전에서 커다란 위력을 떨치었다.

엄혹한 전화의 그 나날에도 조선로동당을 비상히 강화하며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글 러해

항일무장력을 강력히 혁명대오로 꾸리시여

1932. 4. 25.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은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으로 주체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안아왔다.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관에서 창건될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은 100여명이었고 무기도 보잘것없는 상비적인 무력이었다. 국가적인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일제의 100만대군과 결사전을 벌인 항일무장투쟁은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초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혁명앞에 중요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강습들을 조직하시였다. 왕청현 요영구와 화소포에서의 군정학습, 연길현 삼도만능지영에서의 군정강습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왕청에서 진행된 군정강습에 나오시여 몸소 강의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내외정세와 조선혁명의 전략전술

에 대하여 해설하시면서 부대안에서의 정치사업, 유격구인민들과 적통치구역 군중들속에서의 정치사업에서 류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의 견지에 확고히 서서 대중의 준비정도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강습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성원들과 적통치구역의 정치공작원들, 유격구안의 당간부들은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갖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자라났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행군도중의 짧은 실참에도, 하루밤 묵어가는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열심히 학습하였다.

학습을 전투적으로 하였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철불굴의 혁명가들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언제나 신심드높이 만났을 굴함없이 헤쳐올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기본형식으로서의 유격전에 관한 전략전술을 밝힌 교범이나 참고할만한 경험자료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유격전법과 전술들

을 내놓으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격군 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유격전에서 적용하여야 할 전술과 전법을 새롭게 창조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이께서 집필하신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에 반영된 유격전술과 전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정통하기 위함엔 중심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였다.

하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밀림지대와 야산지대를 적절히 엮 바꾸어가면서 적들을 따돌리고 때로는 대도로로 행군하여 신속한 기동을 보장하였으며 대

부대에 의한 집중공격과 소부대에 의한 기습전의 배합, 유인전술과 매복전술, 선회전술과 망원전술의 능숙한 적용으로써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타격을 가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필승의 무장대오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혁명군은 우리 인민들에게는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아시아의 《맹주》로 허장성세하던 일제 침략군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글 김일봉



보금 자리

(전호에서 계속)

이 《토벌》이 얼마나 잔학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었던지 왕청사람들은 그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뒤산에 들들 울리고
기관총과 류산탄은 비발갈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에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덕원리의 농촌은 재터뿐이다
무죄량민주집은 들에 널리고
왕청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땅에 살고있는 무산대중아
일치단결 일어나 싸워나가자
우리들은 끊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리라

소왕청과 대왕청골안으로는 야수들의 《토벌》에 집을 잃고 혈육을 잃은 피난민들의 분류가 그칠새없이 흘러들었다. 일본의 비행기들은 일반주민들밖에 없는 그 인파를 향해서도 폭탄을 마구 던지었다.

수정같이 맑은 왕청의 강물은 삼시간에 선혈로 물들었다. 어떤 날은 그 강물로 학살된 사람들의 창자가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마로인이 우리를 데려다준 전각루도 간도림시파견대 살인마들의 행패가 심했던 고장이었다. 이 고장에 달려든 적들은 수십명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걸어놓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마을은 순식간에 재더미가 되었다.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

《전각루참안에 제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고통》이라는 격문이 배포되어 돌아간것만 보아도 이 《토벌》의 규모와 야만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간도혁명의 중요한 발원지들의 하나인 소왕청과 라자구가 사이에 위치하고있는 전각루는 일찍부터 항일투쟁의 세례를 많이 받아온 고장이었다. 수천명의 농민들과 때목군들, 채벌로동자들이 한데 뒤섞여 와글와글하는 이 골안에는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조직과 함께 계층별로 되는 혁명조직들이 다 들어가있었다. 이 조직들이 군중을 동원하여 춘황투쟁때에는 마을에 등지를 틀고있는 보위단을 들부시기까지 하였다.

군중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은 보위단원들은 그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토비가 되고말았다.

투쟁은 승리하였으나 혁명군중은 13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 전각루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배출하는 온상으로 되었다. 왕청유격대 3중대장이었던 장룡산도 전각루에서 삼차구까지 다니는 때목군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리광이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활동하던 하마탕은 이 마을로부터 수십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적들은 공산당원 한명만 있어도 그 부락주민들을 전멸시키었다. 공산당원 1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군중을 죽여도 좋다는것이 일본군경들이 제창한 구호였다. 중일전쟁때 화북주둔 일본군사령관인 오카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의 간도《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었고 193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역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3광정책과 이른바 《비민분리》를 목적했던 집단부락정책은 알제리의 항쟁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었고 웰남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다.

삼도만, 해란구, 룡정, 봉림동을 비롯한 연길현의 이름있는 혁명촌들도 모두 주검으로 덮이였다. 훈춘현의 삼한리일대에서는 1 600여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리였다. 연길 한개 현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명에 달하였으니 간도림시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고발할수 있겠는가.

일본군은 간도인민들의 생명재산은 말할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수단인 화식도구까지도 모조리 파괴하였다. 밥도 못해먹게 가마를 깨뜨리는가 하면 노전을 들어내고 구들장을 파헤치였다.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와 재목들을 대두천시내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풀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대신 자갈돌을 달구어 밥을 지어먹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감자나 대두천과 같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토벌군》의 강압적인 퇴거령은 지주들에게도 레외가 되지 않았다. 항일무장부대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적지 않은 몫이 지주나 자산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였다. 적들은 이 원천마저 봉쇄함으로써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혁명군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것이였다.

《토벌대》의 검질긴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끼니를 번지며 산중에서 헤매였다. 그러나 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것은 아니였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막바지까지 가면 더 들어갈 곳이 없었다. 막바지가 나지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수림속에 몸을 숨기군 하였는데 이런 때에 어린애들이 울음소리라도 내면 몰살을 당하는 판이였다.

어떤 녀인은 《토벌대》가 근처에 와서 돌아칠 때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가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품에 꼭 그리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의 총구앞에 놓여있는 수십수백명에 달하는 혁명군중의 신변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토벌대》가 돌아간 다음 아이를 보니 그 어린것은 벌써 숨져있었다. 이런 비극은 간도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에나 다 있었던 비밀비재의 일화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편을 먹이면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울지 못하였다. 어떤 녀성들은 거듭되는 적의 《토벌》에 성화를 먹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유격구의 혁명군중과 전우들을 위하여, 목숨보다 더 귀중한 항일의 위업을 위하여 이 나라 녀인들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였다.

부르쥬아인도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성을 애를 두고 비난할것이다. 자식들의 운명에 것처럼 무심한 녀자들이 어디 있고 자식들의 생명앞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모성들이 어디 있는가고.

(다음호에 계속)

승용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프로레스링 《왕자》 김신락(력도산)이 드린 선물
1962년 4월

만경봉의 무지개

온갖 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어느 봄날 나는 만경봉에 올랐다.

만경봉에서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사연깊은 소나무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소나무에 걸린 무지개.

조용히 불러보느라니 만경봉이 소중한 안고있는 그 전설같은 이야기가 의미심장하게 되새겨진다.

1916년 어느 여름날 만경대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내린 뒤였다.

검은구름이 가셔지고 해가 짙짙 내리비치더니 령룡한 무지개가 만경봉우에 비끼었는데 그 한쪽끝은 만경대고향집지붕우에 드리우고있었다.

제일먼저 그것을 발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지개를 잡겠다고 하시며 누가 말릴새도 없이 고향집옆의 들메나무에 오르시였다.

얼마후 나무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만경봉으로 달려가시여 키높이 자란 소나무에 올라 무지개에 손을 뻗치시였다. 그런데 무지개는 그만 만경봉너머로 사라지고말았다. 무지개를 놓쳐버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아쉬움은 그지없이 크시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이께서 그 령룡한 무지개를 놓쳤다고 할 수 있으랴.

그이의 마음속에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착취자들이 없고 인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번영하는 내 조국에 대한 꿈과 이상이 무지개의 형상으로 자리잡고계시였으리라.

그래서 그처럼 어리신 나이에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무지개잡이에 나서시여 높이 자란 소나무에까지 오른것 아니시였던가.

잊지 못할 사연을 전하는 그 소나무앞에서 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떠올리며 생각하였다.

만경봉의 무지개를 마음에 안으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

에 일체를 쳐부시는 싸움의 길로 결연히 떠나시여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꽃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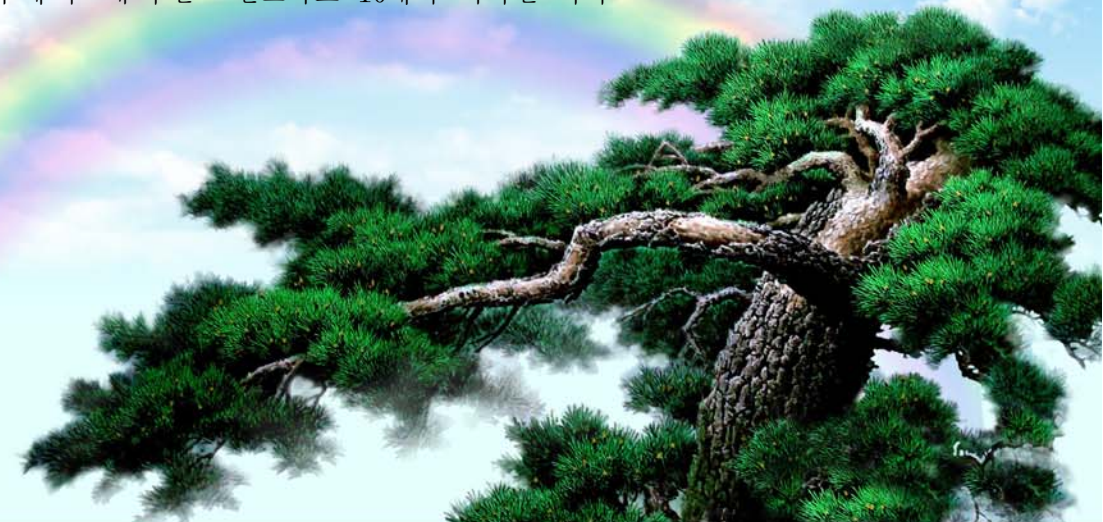
자신과 가정보다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무궁번영을 앞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나는 만경봉에서 희한하게 전변된 평양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는 내 조국의 모습이 찬란한 무지개의 형상으로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날의 만경봉의 무지개에 담아 그려보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꿈과 이상은 눈부신 현실로 세세년년 펼쳐질것이다.

글 임향심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

오늘 우리식 사회주의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그 우월성과 불패성을 세계에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그 비결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혁명과 건설의 전 행정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철저히 구현해온데 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인민을 위한것보다 더 중차대한 최우선과제는 없다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놓여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는 사회주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첫자리에 놓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것이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되고있다.

정치와 군사, 경제가 오직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문화와 도덕도 인민적인것만이 장려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의 복리증진과 그들이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우리 나라가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것도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나날이 악랄해지고있는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 해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고있는것도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실현을 떠난 혁명의 진일보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적시책을 더욱 뜨겁게 끌고루 베풀며 전체 인민이 한식솔이 되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 모든 창조물이 인민의 재부로, 향유물로 되어 있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며 풍부한 문화를 꽃피워나가는 사회가 다름아닌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밑바탕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는 멸사복무정신이 놓여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

민이 바라는것,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복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이다.

이 땅에 꽃피어나고있는 인민의 행복은 철두철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조국에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실천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이 변하는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이처럼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종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다.

인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령도자를 모신 국가는 승승장구하기마련이다.

글 변진혁

교육진흥은 전면적국가부흥의 근본담보

지난해 12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한 정으로 토의결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의 넷째 의정에 대한 강력한 결론에서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라고 강조하시였다.

국가와 사회발전에서 교육이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사업을 국가발전의 출발점, 부흥의 진로로 내세웠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가속화되고있는 오늘날 교육진흥은 전면적국가부흥의 근본담보로 된다.

교육진흥은 전면적국가부흥,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선결조건이다.

국가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자재나 자금보다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단위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다.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는 심도있는 전문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이다. 이

러한 인재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육성되게 된다.

이런데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의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으로, 리상적인 교육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교육구조도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줄수 있게 개편하였으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사업도 힘차게 벌려왔다.

교육진흥은 모든 지역과 부문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을 당대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방대하고 통이 큰 농촌살림집건설을 전국적판도에서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지방공업발전정책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그 실행에 전국가적인 힘을 넣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이는데이다. 지금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서로 차이내고 도시와 농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지적수준에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여야 지방진흥, 농촌진흥의 주체가 강위력하게 자라나며 지방의

동시적, 균형적, 비약적발전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교육진흥은 지방과 농촌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교육진흥은 우리 조국특유의 자생자결의 발현으로 된다.

력사적으로 농고보아도 조국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으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최대로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다.

경제적장성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외자도입이나 인재수입이라는 《지름길》을 택하고있지만 그것으로는 일시적인 성과밖에 기대할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교육부문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 조국은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며 전국각지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핵적인 역할을 하여 전면적국가부흥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일화

위민천신의 나날에

스쳐지나지 않으신 록지구획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삼지연시병원을 찾으시였다.

이날 병원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 깊이 관심하신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일떠서는 병원의 원림조성사업을 치료예방기관의 특성에 맞게 잘하는것이였다.

당시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앞마당에는 자그마한 록지구획이 자리잡고있었다.

병원앞마당으로 들어서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록지구획에 키작은 나무만 심어놓은것을 보시면서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힘이 들어도 키큰나무를 떠다심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스를 타고오는것은 아니므로 포장구획을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구형이나 타원형으로 된 록지구획을 조성하고 거기에 잔디도 심고 붓나무도 심어야 한다고, 그리고 환자들이 앉아 휴식할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병원이 한결 더 보기 좋아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날 일군들이 다시금 깨달은것은 록지구획조성사업의 중요성만이 아니였다.

이 땅에 세워지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은 모두다 최상의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이였다.

깊이 마음쓰신 문제

201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날은 한겨울의 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던 날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새로 꾸려진 이불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반제품이불들을 보아주실 때였다.

한동안 반제품이불 여러채를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진한 분홍색이불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우리 사람들은 진한 색깔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이불을 진한 색깔이 나는 천으로 만들지 말고 고상한 색깔이 나는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고상하고 소박하며 아름다운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깊이 헤아리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이불의 색깔을 두고도 것처럼 마음 쓰시였던것이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갈 때 그들에게 이런 멋있는 이불들을 안겨주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였다.

세심히 가르쳐주신 부족점

201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찾으시였다.

개건된 공장구내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옳은가고 하시면서 공장의 내외부가 의료부문의 본보기공장답게 꾸려졌다고, 건축형식도 좋고 주변환경도 깨끗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이 현대적인 수술대, 해산대,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 치과종합치료기를 비롯하여 병원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첨단공장으로 꾸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에서 생산한 의료기구시제품들을 하나하나 동작시켜보시면서 그 성능들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진찰침대와 치과종합치료기에 친히 앉아보시기까지 하시며 그이께서는 해면이 좀 딱딱하고 굳은감이 난다고, 특히 환자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는 오랜 기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앉아있게 되는것만큼 머리판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다심한 그이의 사랑이 있어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훌륭하게 전변될수 있었다.

* * *

계속혁신, 련속도약의 기세드높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굴지의 건재생산기지의 하나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보통의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최고생산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수만t의 세멘트를 더 증산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계획외에 지난해 증산한 량의 10배에 달하는 수

십만t의 세멘트를 더 생산할 목표를 제기하고 매달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련속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그 비결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올해 인민을 위한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건설목표를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하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한데 있다.

올해 첫달 증산목표수행과정을 통하여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대중의 정신력만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은 기업소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의 양양된 열의

가 그대로 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산정상화의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있다.

이와 함께 원료와 연료생산 및 운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 조합원료직장 등에서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배풍기에 물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생산성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앞을 다투어 도입하여 세멘트증산에 기여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의 로동자들

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찾아내는 한편 굴착기와 파쇄설비들을 기술개조함으로써 석회석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화천탄광의 탄부들은 기성관례를 타파하고 혁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하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혁신은 수송을 맡은 단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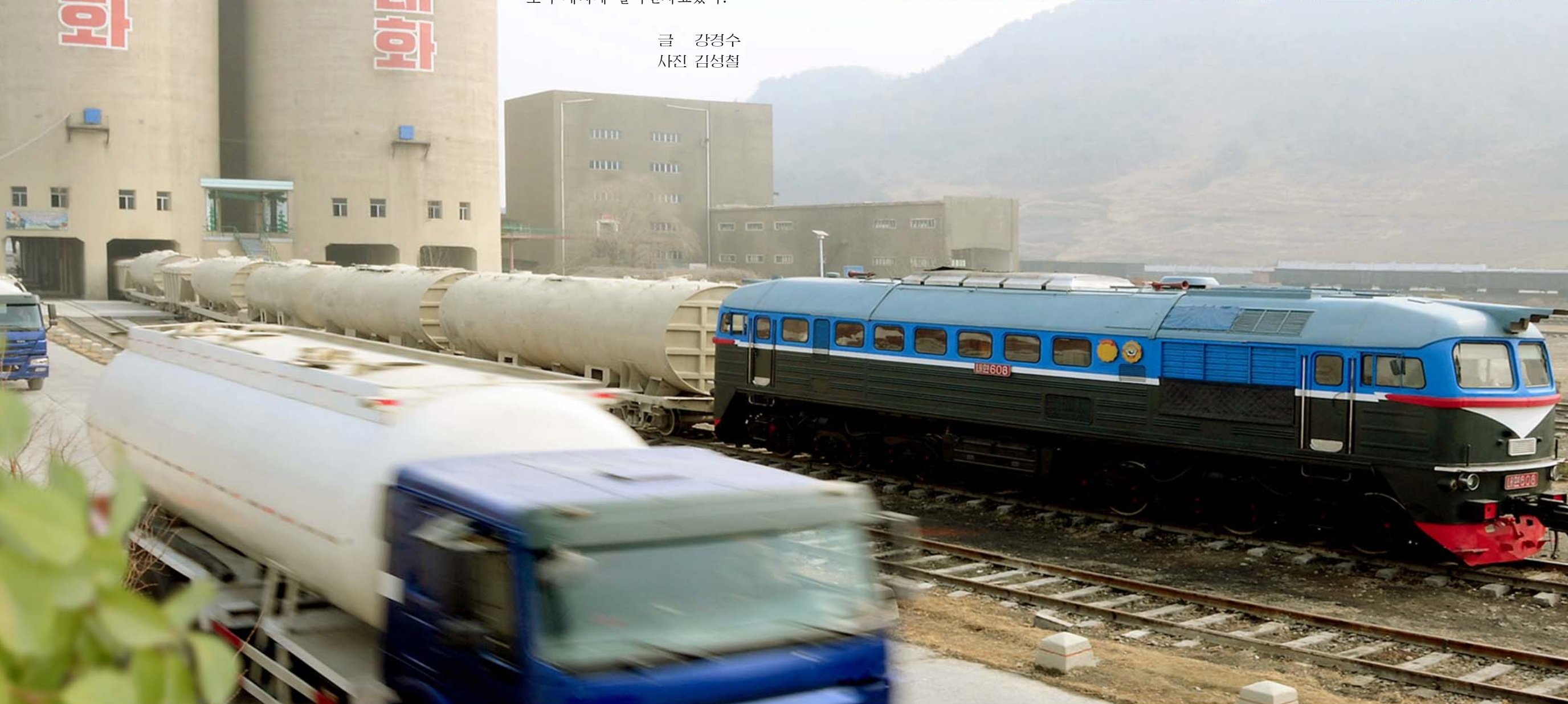
과학화
정보화

주체화
현대화

에서도 일어나고있다. 기관사
들은 원료와 연료의 우선적보
장이자 곧 세멘트증산이라는 관
점밑에 일평균실동률을 150%
이상 끌어올리면서 증송의 기적
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관철해가려는 이
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의 증산운동, 애국운동은 날이
갈수록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보다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글 강경수
사진 김성철





고향소식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지방중흥의 첫 실체가 일떠선 성천군



.....
 평안남도 성천군이 보다 유명해지고있다.

성천군은 예로부터 약밥과 명주, 담배로 유명했고 몇년전에는 농업과 살림집건설 등에서 앞선 군들중의 하나로 손꼽히었지만 오늘은 지방중흥의 첫 실체가 일떠선 군으로 자기의 모습을 새로이 하였다.

.....

얼마전 우리는 그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해 성천군으로의 취재길에 올랐다. 이 고장에는 중국 베이징시에서 살고있는 최철호동포의 조카 최용남을 비롯한 적지 않은 동포연고자들이 살고있었다.

우리를 태운 차가 군소재지의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시야에 안겨오는것은 특색있는 모양새를 갖춘 살림집들이었다.

몇년전 군에서는 군행정구획을 산업구획, 살림집구획 등으로 건설하였는데 특색있는것은 담배잎모양을 한 살림집들을 구색이 맞게 세움으로써 지역이 유명한 담배산지임을 보여주고 있는것이였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나라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새로 건설된 지방공

업공장들이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된 군의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 옷공장에서는 쉬임없이 제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기쁨 또한 컸다.

식료공장의 젓제품가공반반장 차경희는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현대적이라고, 원료보관으로부터 투입, 생산, 포장, 제품반출에 이르기까지 나무랄데 없으며 특히는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할수 있게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되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용품공장에서 만난 작업반장 림정국은 현장에 우리가 만든 새 설비들을 일식으로 차려놓았는데 설비마다 자동화수준이 매우 높고 표준조작도 간단하여 다루

기가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비들을 다루면서 당에서 많은 품을 들여 최상의 수준에서 설비들을 마련해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앞으로 설비들을 소중히 다루고 제품의 질을 높여 나라의 은정이 군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장을 나선 우리는 군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방공업공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성천군 읍 320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윤성필로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착공식과 준공식을 진행했던 장소에 자주 와본다고 하면서 그이를 모시여 참으로 멋있는 시대, 정말 좋은 로동당세월이 펼쳐진다는 생각

으로 눈굽을 적신다고 하였다.

우리는 최철호동포의 조카 최용남도 만나보았다. 그는 지방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최우선시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의해 지방이 흥하는 새시대가 열리었다고 하면서 다름아닌 성천군이 그 발전의 서막이 펼쳐진력사적인 고장으로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착공식과 준공식에 참석하시었을 때 몸가까이에서 뵈웠다고 하면서 성천군인민들을 위해 바쳐가신 그이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여 꼭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성천군 읍 136인민반에서 사는 김학철과 166인민반에서 사는 김인철을 비롯한 성천군의 많은 사람들에

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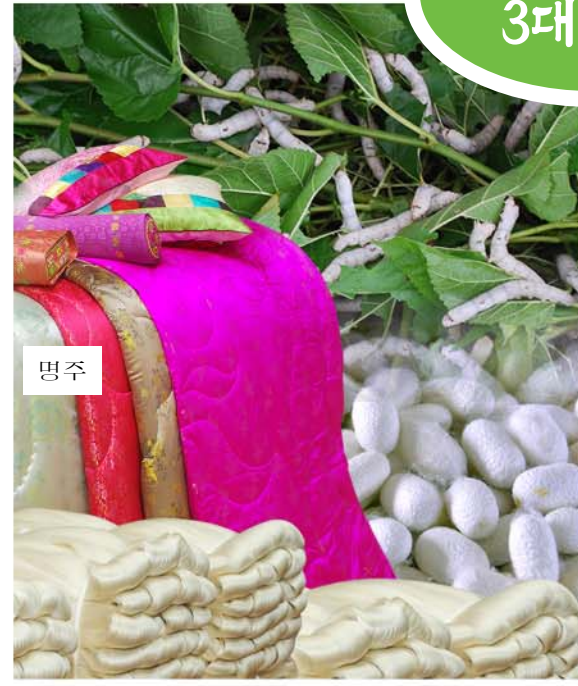
군의 일군인 김석철은 나라에서 이처럼 멋쟁이공장을 일떠세워주었는데 이 공장들이 은을 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기제품, 성천군사람들이 선호하는 명상품들을 생산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으며 여기 성천군과 더불어 련이어 솟아오르게 될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의 모습도 그려보게 되었다.

글 강은순
사진 김호, 리병국



성천지방의
3대 특산





꿈과 희망을 꽃피우는 학생들



-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

꿈과 희망이 가장 많은것이 아마 학생소년들 일것이다. 과학자, 체육인, 군인, 음악가 등 그들은 제 나름의 꿈과 희망을 안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날아갈듯한 조선식합각지붕을 머리에 얹고 그에 어울리는 벽면장식을 한 개성학생소년궁전의 정원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우리와 만난 궁전의 일군인 최금희는 《우리 개성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려웠던 전후복구건설시기인 1956년에 내각결정 제7호를 채택하여 건설하도록 하여주시고 몸소 궁전의 터전도 잡아주시어 1961년 6월에 창설되었다.》

라고 서두를 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궁전에 찾아오시어 학생교육교양사업과 궁전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궁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여러가지 설비와 기자재가 수백점이나 된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궁전은 1만 2 000여㎡의 건평에 수십개의 소조실과 극장, 체육관, 도서실 등을 갖추고있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정보기술소조실이었다. 여기에서는 소조원들에게 프로그램작성기초



기악소조실에서

로부터 지능프로그램작성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작성법을 위주로 하여 배워주고있었다. 소조원들속에는 수학에 남다른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난도높은 프로그램들을 척척 작성하는 전강령학생도 있었다. 지도교원의 말에 의하면 수학적론리가 정연하고 착상이 뛰어난 강령학생이 소조를 다닌지는 1년밖에 안되지만 발전속도가 대단히 빠르다고 하면서 20대에 박사가 될 꿈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이 학생만이 아닌 수학, 물리를 비롯한 여러 소조실들의 그 어디에서나 학생들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우고있었다. 물리소조실의 소조원들은 실험과 실습으로, 수학소조실에서는 학생들

이 실용성높은 강의를 통하여 이미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고있었다. 우리는 민요의 고유한 창법을 익히느라 여념 없는 민족성악소조실과 다양한 주법으로 능숙하게 악기를 다루는 손품금소조실을 돌아본 후 민족무용소조실에도 들리였다. 여기에서는 교원의 지도밑에 소조원들이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다양한 춤동작을 펼쳐놓고있었다. 소조원들은 자기의 재능이 꽃피어나는 모습이 부러워 하늘의 달도 서산으로 지지 않으려 하고 해님도 빨리 뜨고 있다는 동심을 담은 새 작품을 준비하고있었는데 무용동작들이 우아하였다. 소조에서는 지난 기간 민족무용작품들을 많



2023년에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 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부문 레슬링 38kg급경기에서 1등한 개성시 남산고급중학교(초급반) 학생 남장권

2023년에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 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부문 권투 38kg급경기과 46kg급경기에서 각각 1등한 개성 학생소년공전 권투소조원들과 지도교원 한준명



2024년에 진행된 제24차 전국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축전(당시) 학생소년공전(회관) 소조원들의 국가상징주제의 미술작품창작경연 인두화 부류에서 1등한 개성시 라북고급중학교 학생 윤승룡과 지도교원 안영걸



2023년에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 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부문 레슬링 51kg급경기에서 1등한 개성시 선죽고급중학교 학생 리청해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녀자단체 맞서기에서 1등을 쟁취한 조선태권도위원회 선수 김정일청년 영예상수상자 공훈체육인 김류경은 개성학생소년공전 태권도소조를 대니었다.

하였는가 하면 미술소조의 윤승룡학생은 2024년에 진행된 제24차 전국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축전(당시) 학생소년공전(회관) 소조원들의 국가상징주제의 미술작품창작경연 인두화부류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래일의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로 준비해가는 학생들

의 모습은 다른 소조들에서도 볼수 있었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재간둥이들로, 미래의 역군들로 자라나고있었다.

어디 가나 배움의 교정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기다리고있으며 가는 곳마다에 이 궁전과 같은 과외교양기자들이 솟아있어 학생들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우고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개성학생소년공전을 나셨다.

글 강경수, 사진 리철

이 내놓았는데 적지 않은 작품들이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 전도가 기대되는 예술인후비들도 많이 배출하였다. 얼마전에 있는 예술축전에서는 선죽고급중학교의 김범향학생이 개인경연에서 우승하였다고 한다.

권투와 레슬링, 미술소조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 권투소조의 장호주, 김일권 등의 학생들과 레슬링소조의 리청해, 남장권학생들이 2023년에 진행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 학생소년공전, 학생소년회관부문 권투, 레슬링경기에서 각각 우승하여 금메달을 쟁취

수필

우선권에 대한 생각

이 세상에 수억의 어머니들이 있다고 한다.

그 어머니들의 제일 큰 기쁨은 자식들을 잘 내세우는 기쁨 일것이다.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어머니들은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긴다.

개학을 맞이한 어느한 소학교에서 있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사내아이든 처녀아이든 몸과 키에 꼭맞게 새 교복을 차려입고 교과서며 학습장, 학용품들 그득 채운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좋아라 뛰노는 모습들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흥그롭게 해주었다.

바로 이때 학교정문으로 한대의 차가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차안에서 뜻밖에도 한 학생의 교복이 내려졌다.

《이름 리평웅, 청진학생교복공장》

교복의 주인은 바로 함경북도 무산에서 얼마전에 평양으로 이사를 온 리평웅이었다.

무산에서 몸재기를 한 평웅이는 불가피하게 교복공급을 며칠 앞둔 시기에 평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교복문제를 놓고 은근히 마음을 쓰게 되었다.

새 교복이 북변땅 한끝에서 수도 평양으로 운반되어 아들에게 안겨진 엄연한 사실앞에

서 어머니는 눈곱을 적시고야 말았다.

교복. 단순히 천과 실로 이어진 피복제품이 아니었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였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오늘 이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은것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비단 오늘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건국의 초행길에서 푸셔야 할 일 무수히 많았고 의논해야 할 일 산을 이루었던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일먼저 어린이들의 연필문제를 중요회의의 의정으로 상정하시였고 귀중한 자금을 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전후 중요국가건설대상들이 수많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수도의 명당자리에 정부청사도 아닌 바로 어린이들의 궁전을 훌륭히 지어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 사랑이 있어 교육은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된것이 아니였던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해 계속 이어졌으니 한두명의 섬아이들을 위해 분교가

서고 립산마을의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통학렬차가 달리였으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공장의 동음은 멎을지언정 아이들의 배움의 종소리는 중단없이 울리였다.

오늘 아이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따사로운 한푼에 안겨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수업은 계속되였고 재난을 겪은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기동교육대가 조직되였으며 나라가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새로운 육아정책이 실시되어 어린이들에게 명절과 휴식일에도 어김없이 공급되군 하는 젓제품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用品을 보장하는 등 후대들을 위한 사랑은 정녕 끝이 없는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보육과 교양, 교육문제가 당과 정부의 중요회의들의 단독의제로 오르고 중대결정들이 채택되고있는 것은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앞에, 그 인민우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것이 바로 온 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따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관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우선권에 놓은 레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 우선권의 혜택아래 복받은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얼마나 더 밝고 창창할것인가.


글 김성경



조선어린이후원협회



평양육아원을 찾은 협회성원들



조선어린이
후원협회
서기장 방설란

《후원사업을 의무감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어린이들을 위해 진정을 바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진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가운데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성원들도 있다.

2013년 11월 21일에 창립된 협회는 어린이후원관련사회단체로서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건강 및 위생, 영양관리 등을 개선하여 미래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사업을 방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육류아동병원에 본부를 두고

있는 협회는 각 도들에 지부들을 두고있다.

협회에서는 모든 성원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건강 및 위생, 영양관리, 지능발달과 생활조건 및 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보건성과 협력하여 본부와 지부, 자원봉사자들이 락아소와 유치원, 소아병원, 진료소, 주민지역들에 나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생활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단체들, 여러재단들, 개별적인사람들과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건강 및 위생상식보급활동을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국내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관리, 지능개발과 관련한 상식들을 반영한 여러가지 선전물들을 배포하고있다.

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대렬이 늘어나는데 맞게 국내

외의 후원자들을 회원으로 망라하는 비상설조선어린이후원회를 정상운영하여 협회의 여러가지 대상계획들을 실행하며 국내의 열성회원들에 대한 소개선전과 다양한 우대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후원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나가고있다.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에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진심을 바쳐가고있다. 지난 2월 협회에서는 또다시 평양육아원을 찾았다. 본부성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물자들에는 원아들의 지능개발에 이바지할수 있는 놀이감들과 건강식품들은 물론 건강 및 위생상식도서들도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해 걷는 이들의 발자국은 평양육아원과 평양애육원은 물론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큰물피해지역들에도 찍혀져있다. 이 과정에 협회의 회원들은 원아들로부터 《아빠》, 《엄마》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보육원들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되었다.

협회에서는 수많은 국내의 자원봉사자들과 언제나 조국에 마음을 잇고사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합쳐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글 김일봉
사진 김강무

상식

4월의 절기와 민속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마스한 4월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계승하여왔다.

4월의 절기들에는 청명과 곡우가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때라는 뜻이다.

우리 인민들은 청명이 되어오면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트랙의 꽃밭에 여러가지 꽃씨를 뿌리었으며 집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예로부터 청명은 추석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에게 조상의 묘를 찾는 날로 간주되고있다.

곡우는 곡식이 자라는데 유익한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우리 인민들은 농사일로 바쁜 날들을 보내었다.

청명, 곡우절기에 우리 인민들은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진행하고 강하천과 바다에서 물고기잡이도 하였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이고 곡우는 4월 20일이다.

* * *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하여



인공지능기술을 리용한 이 프로그램은 압록강기술개발무역회사에서 내놓은것이다. 압록강기술개발무역회사는 국내외에 자기 이름이 뚜렷하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로정보기술제품전시회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제품들중에는 얼굴화상복원 프로그램 《선명》1.0도 있다.



이전에 찍은 낡은 얼굴사진들과 초점이 맞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못한 얼굴화상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크기의 사진들을 선명하게 확대복원해준다.

수백명의 두뇌진과 완벽한 제품개발 및 생산능력을 가진 고있는 회사는 생체식별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지난 시기 회사는 인물식별, 음성인식, 차번호식별, 지문식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



룩하였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계속 살려나가고있다.

우철진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2017년부터 심층신경망기술을 리용하여 얼굴화상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생성대립망기술을 리용한 심층신경망을 설계하고 얼굴화상복원을 위한 부분망들의 합리적인 결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 대자료기술, 얼굴특징점검출과 얼굴복원, 배

경복원과 같은 기술들을 적극 결합하였다.

사진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이들은 연구사업을 시작한지 7년만에 사용편리성이 담보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였다.

사용자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집체사진에 대해서도 모든 얼굴들을 동시에 복원하며 매 얼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복원결과들을 얻게 된다, 매 얼굴에 대하여 복원세기를 조절할수 있고 원근감

을 살릴수 있게 적당한 흐림도 첨가할수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배경의 화질도 동시에 복원하며 얼굴과 배경의 경계도 자연감이 나게 처리할수 있다, 놀랍다라고 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다.

회사의 개발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기 단위의 발전과 지위를 고수해나가고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강무

상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 몇가지

- 박하차

박하차는 코르티졸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 갈류

갈류는 코르티졸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 말린과일

세로토닌수치를 높이며 중요한 영양물질들이 풍부한 식품이다.

-포도당함량이 높은 과일

뇌에로의 세로토닌공급을 촉진하여 뇌의 작용을 강화한다.

- 현미

세로토닌수치를 높이는 또 하나

의 식품으로서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수 있다.

우와 같은 식품들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세로토닌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불안감을 완화시킬수 있다.

* * *

하나의 큰척을 간직하고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의 물정화공정연구실 연구사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자기들이 하는 연구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하며 그 성과가 현실에 제때에 도입되어야 한다는것은 그들 누구나 내세우고있는 사업준칙이다.

이곳 연구집단이 이 준칙을 소중히 간직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실장 안중혁의 노력과도 관련된다.

안중혁실장은 이미전에 국제유럽점토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최고상을 받은바 있으며 도이

칠란드 한노버종합대학 박사원을 다닐 때에는 우리 나라에 흔한 점토광물을 리용한 키토잔-몬모릴로나이트유기점토흡착제를 연구하여 국제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당시 도이칠란드의 학자들은 그가 연구론문을 자기 나라에서 발표하면 많은것을 얻게 될것이라며 남을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귀국하여 조국에서 연구론문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논문은 나라의 물정제분야에서 진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물정제기술의 개발과 그 응용분야를 하나하나 개척하는 한편 연구성과도 제때에 현실에 도입해나갔다.

그의 이런 모습은 실안의 연구사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 나날에 그들은 해안가마을과 섬마을사람들에게 질 좋은 음료수를 해결해주기 위한 연구를 완성하였으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의 정상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지금도 황철의 로동계급은



낮과 밤이 없는 연구끝에 그들은 려과막재생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련이어 해결하였으며 마침내 물처리공정의 성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회복하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대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난해에도 그들은 평안북도 큰물피해지역 주민들의 음료수보장을 위한 물정제기를 짧은 기간에 연구제작하여 보내주었으며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20개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 필요한 물정제설비들을 훌륭히 만들어 보내주었다.

이 나날 그들이 받은 과학기술성과도입증, 발명증서를 비롯하여 각종 증서만 하여도 수백개나 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이곳 연구집단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강은순
사진 리철

용광로의 정상가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곳 연구사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때 황철의 로동계급은 산소열법용광로 폐열보이라의 용수보장을 위한 물처리공정의 성능을 회복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물처리공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려과막장치의 많은 려과막을 새로 교체해야 하였는데 그러자면 대보

수기일을 도저히 보장할수 없었다. 유일한 방도는 려과막의 성능을 회복하는것이였다.

당시 연구사들은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한것은 이에 대한 연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다가 긴급한 연구과제들이 그들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안중혁실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우리가 다 맡아 해결해주자며 생소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들이 연구제작한 물정제기는 경성군식료공장에도 도입되였다.

바다물정제기



세계도서 및 출판의 날
4. 23.

《조선민속학총서》 (전 50권)가 새로 나왔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에서는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오랜 력사기간에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온 우수한 민속전통을 학술적으로 종합한 도서 《조선민속학총서》(전 50권)에 대한 집필을 완료하였다.

《조선민속학총서》는 민속학에 대한 원전도서인 《조선민속학개요》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시대별계승관계 및 발전과정을 서술한 민속도서 그리고 식의주와 민속예술, 민속놀이, 가족생활풍습을 부문별로 서술한 도서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로동생활풍습과 정서생활풍습을 반영한 도서들 그밖에 마을생활과 공동로력조직과 관련한 생활풍습을 담은 도서들을 포함하여 총 50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선민속학총서》(전 50권)는 우리 나라의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이 오랜 력사적과정에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온 민속전통을 주체성과 과학성, 력사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새롭게 서술한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한 도서로서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축구계의 기성관념을 깨버린 우리 나라 선수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부위원장 한은경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와 국제축구련맹은 여자축구의 발전과 활성화화를 다그치고 세계적인 선수후비육성을 보다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가기 위해 20살미만, 17살미만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2년에 한번씩 진행할것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대회들은 단순히 나이에 따르는 대회이기 전에 해당 나라의 여자축구발전면모와 선수후비육성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발전전망을 예측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인것으로 하여 세계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습니다.

2002년 제1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로 시작된 20살미만 여자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는 2008년부터 국제축구련맹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진행되고있으며 지난해 대회에서부터

24개 팀으로 참가팀수가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2008년 제1차 세계청소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로 막을 올린 17살미만 여자축구팀들이 참가하는 대회에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16개의 우수한 팀이 참가하고있으며 2년에 한번씩 열리던 대회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해마다 진행되게 됩니다.

기자: 지난 시기 진행된 20살미만, 17살미만 경기대회들에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은 세계여자축구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습니다.

부위원장: 우리 나라 20살미만, 17살미만 여자축구팀들은 2006년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청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2008년 뉴질랜드에서 있는 제1차 세계청소년여자

기자: 1970년대에 국제축구련맹의 정식종목으로 인정된 여자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여자축구는 1991년 제1차 세계여자축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수많은 축구전문가,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국제적인 인기체육종목으로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쟁취한데 이어 2016년과 지난
해에 진행된 20살미만, 17살미
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각각 1위를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나라 20살미만 녀
자축구팀은 대회력사상 월드컵
을 3차례나 쟁취한 3대강팀으
로, 17살미만 녀자축구팀은 처
음으로 월드컵을 3차례나 들어
올린 최강팀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나라 녀자축구기술의 발전상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 녀자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본 세계의 수
많은 축구애호가들과 전문가들
은 우리 나라 팀이 축구애호가
들의 머리속에 인박혀있는 기
성관념인 《축구계에서의 유
럽, 아메리카우월론》을 완전
히 뒤집어놓은데 대하여 평하
였습니다.

부위원장: 그럴것입니다. 우
리 나라에서 녀자축구의 전망은
확고합니다.

매 학교마다 축구소조가 있
어 총명하면서도 적성체질의 학
생들을 선발하고 기초교육을 주
고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가운데서 또 엄
선하여 우수한 학생들은 평양
국제축구학교에서 배움의 나래
를 펼치고있습니다.

축구신동으로 소문난 최일선
선수를 비롯하여 많은 선수들이
평양국제 축구학교를 졸업한 학
생들입니다.

우수한 교육진영을 가진 평
양국제 축구학교에서 최일선선



우리 나라 20살미만, 17살미만 녀자축구팀들이 2024년에 진행된 국제경기들에서 4개의 우승컵을 쟁취하여 세계축구계를 뒤흔들었다.

수와 같이 개성적특기를 가진
선수들은 계속 배출될것입니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육체
기술적능력도 평가할만하지만
그보다는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
이겠다는 정신이 남다릅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훈련장
과 경기장에 나섭니다.

올해에만도 많은 국제경기들
이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을 기다
리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
수들은 훈련을 더 강화하여 국
제경기마다에서 우승의 금메달
로 조국의 기상과 명성을 떨쳐
갈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기자: 앞으로 국제경기들
에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 * *





금별상수상자 전일청

《그는 상대팀 방어진에 대한 돌파능력과 빈공간조성능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팀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수였고 상대팀에 있어서는 두려운 존재였다.》

이것은 국제축구연맹웹사이트가 2024년 17살미만 여자 월드컵경기대회이후 전일청선수에 대해 평한 글이다.

전일청은 중간방어수이다. 공격수도 아닌 중간방어수에 국제축구계의 가장 무게있는 상이 차례진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실 그가 월드컵경기대회 7차례의 경기들에서 획득한 득점수는 2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나무랄데 없는 공련락기술을 떠나서 조선의 세번째 월드컵을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라는것이 세계축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었다.

방어가 제일 센 팀으로 공인된 뿔스까팀과의 준준결승경기에서 경기시간 14분경에 성공한 득점은 관중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전일청선수가 왼쪽측면에서 재치있게 넘겨차기한 공이 11번공격수의 정확한 차넣기에 의해 귀중한 득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후 득점은 더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나라 팀은 1:0으로 뿔스까팀을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팀이 결승으로 가는 길의 첫돌파구를 바로 전일청이 멋진 득점련락으로 열어놓았던것이

다. 이날 경기를 본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우리 팀을 득점을 제일 빨리 한 팀으로 평가하였다.

팀을 위한 그의 기여는 그후 에스빠냐팀과의 결승경기에서도 과시되었다.

경기시간 66분경 그는 상대팀방어수들의 뒤공간으로 련락받은 공을 문지기를 빼돌리고 정확한 차넣기로 득점을 성공시켰다.

그후 그는 11m승부차기에서도 득점을 성공시켜 팀의 우승에 확실하게 기여하였다.

그는 압록강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다.

체육단의 감독들과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높은 기술은 평시 훈련에서 련마된것이라고 한다.

압록강체육단의 축구감독 공훈체육인 허순희는 《어떤 순간에도 가장 합리적인 공련락위치를 찾을줄 아는 빠른 정황판단, 이것이 다른 선수들과 전일청 선수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나서자란 그는 처음에는 소학교에서, 다음은 구역과외체육학교 축구소조에서 기초기술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후에는 압록강체육단에 망라되어 보다 높은 급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감독은 그의 영민하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문전결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일청은 자기를 위해 원심을 쓰는 감독의 모습에서 재능의 싹을 찾아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기어이 축구명수가 될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는 심한 다리부상으로 이번 경기대회참가를 자신이 거부하였었다. 경기를 앞두고 집단의 짐이 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그에게 감독들과 선수들은 힘과 용기를 안겨주면서 다시 자기 위치에 설수 있게 이끌어주었다. 집단의 방조와 고무속에 그는 강의한 의지로 아픔을 이겨내며 끝내 팀의 승리를 보장하였던것이다.

두번째 금별상을 기대한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나 개인의 상이 중요치 않다. 팀의 승리와 명예속에 나 개인의 명예도 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집단의 명예를 위해 있는 힘껏 달릴것이다.》

체육인에게서 10대에 거둔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이 앞날의 성공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뛰어난 축구기술과 함께 집단의 명예를 앞에 놓는 그의 성실한 태도는 앞으로도 시작과 같은 귀중한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글 강소현

옷차림문화를 높아가는 문명수준에 맞게

- 조선피복공업협회에서 -



나라의 옷차림문화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조선피복공업협회의 활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다.

협회는 나라의 피복공업부문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일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선진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것과 함께 고유한 민족전통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우리 식의 옷가공기술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피복공업구조가 임가공수출위주로부터 국내옷가공위주로 전환된 현실적조건에 맞게 모든 피복제작단위에서 옷설계와 재단, 가공 등 피복공업기술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현대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옷을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진행해나가고 있다.

조선피복공업협회에는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서 의상도안창작과 보급사업을 진행하

고있는 우수한 도안가, 제작자, 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부서기장 윤홍길의 말에 의하면 협회에서는 해마다 기술지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옷차림문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미학적정서와 체모에 맞으면서도 현대감이 나는 새로운 옷도안들과 옷가공제품들을 심의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기술실무강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각 지방



의 피복제작단위에서 선진적인 옷설계와 가공기술방법을 전수하기도 한다.

협회의 이러한 보급활동은 옷차림문화에서도 수도와 지방의 차이를 줄이고 전국의 모든 지역의 피복제작단위들이 다같이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적극추동하고 있다.

협회활동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명수준에 맞게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옷차림문화를 창조하고 더

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옷전시회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사업과 조직,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여성옷전시회-2022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의 피복전시회를 통하여 옷가공기술뿐 아니라 옷도안창작과 옷전시방법, 봉사방법 등이 새롭게 확립되었다.

협회에서는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의 기호와 사상감정에 맞으

면서도 현대미가 나는 2만여점의 새로운 옷도안들을 창작하여 옷차림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조선피복공업협회는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을 계기로 진행되는 전시회들이 기술교류와 이전의 훌륭한 공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연옥
사진 김평

상식

걸기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린다

걸기운동을 하면 닫겨졌던 모세혈관이 열리지면서 근육속의 모세혈관수가 늘어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나 높아지고 동맥과 정맥의 문합부가 많아진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말초혈관의 피흐름이 활발해져 혈압이 정상상태로 되며 산소공급량이 늘어나므로 피로가 회복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 즉 걸기운동은 고혈압병환자에게 좋다.

* * *



청류관 요리사 김미향(왼쪽에서부터 두번째)

기술상을 받은 요리사

《백미가루와 밀가루의 비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팔고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밀가루로 만든 떡이 맞습니까?…》

지난해 전국밀가루음식전시회장을 찾은 가정주부들이 청류관 요리사 김미향이 만든 밀가루설기를 맛보며 저저마다 물었다.

그때마다 김미향요리사는 비율로부터 시작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백가지 물음에 모두 만족한 대답을 주는 그를 두고 가정주부들은 명요리사라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언제나 독특한 요리를 내놓곤 하는 그는 이 전시회에서 기술상을 받았다.

떡을 만드는 요리사가 기술

상을 받기는 흔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그는 청류관에서 20여년간 떡을 만드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떡은 만들기가 쉽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떡도 다른 요리와 마찬가지로 시간보장과 함께 요리사의 예민한 감각, 높은 기능을 요구한다.

김미향은 민족음식인 떡의 전통적인 제법을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우리 인민이 민속명절을 비롯하여 가정들에서 즐겨 먹던 떡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인 익반죽시간을 확정하기 위해 하루에만도 수많은 반죽물을 이기곤 하였다.

그는 떡에서는 반죽이 기본이라고, 반죽을 잘하면 떡의 고

유한 맛을 살릴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음식인 떡에는 절편, 송편, 설기떡, 쉬움떡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쉬움떡을 만들기 힘들어한다고 하였다.

난알가루를 더운물에 반죽한 다음 감주나 술을 두고 발효시켜 찌낸 쉬움떡은 한여름철에도 쉬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그는 쉬움떡은 다른 떡과 달리 익반죽을 잘해야 하는데 그 반죽에 자기식의 비방이 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부품도가 있으면서도 탄력이 있고 씹는 맛이 좋은 쉬움떡은 청류관의 《이름난 요리》로 등록되었다.

그가 만든 쉬움떡은 모방할수 없어 다른 식당의 요리사들이 요리축전과 전시회가 진행될 때면 은근히 그 비방에 대해 《내담》하곤 한다.

이외에도 그는 전통적인 제법에 현대감을 잘 조화시켜 착안한 여러가지 떡을 내놓았다.

복숭아설기, 병배모양의 호박설기…

그가 만든 설기들은 실지 복숭아나 병배와 쉽게 분간할수 없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자아내게 한다.

10년전 어드한 요리축전에서 처음으로 독특한 설기떡을 내놓아 금메달을 받은 그는 2016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요리축전, 전시회들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그는 인민들의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밀가루음식의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밀가루와 백미가루를 혼합하여 다양한 떡도 만들었다.

글 김세현
사진 리영철

백두산들쭉술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김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명절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하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문기간 조선혁명박물관, 강동종합은실농장, 광천닭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나날이 웅장화려하게 전변되는 조국의 모습을 체감하였다.

그런가 하면 축하단성원들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화봉정점에 올라 스키장의 전경을 부감하였으며 여러 주로에서 스키의 쾌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락랑박물관을 찾아서는 여러 유적, 유물들을 통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보기도 하였다. 특히 인상을 남긴것은 락랑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거울이었다. 청동거울과 관련해서는 류다른 일화가 전해지고있는데 잘 생긴 사람이 보면 거울이 잘 보이고 못생긴 사람이 보면 거



주체음악예술발전관참관을 마치고

울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축하단의 한 성원인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리성철동포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쳐보았는가 하면 총련 군마현본부 위원장 리화우동포는 거울이 안보인다고 익살을 부려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류경금빛상업중심의 23층에도 올라 몰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시내를 부감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방문하면 떠나고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김슬기
사진 김영호



락랑박물관과 류경금빛상업중심을 돌아보는 축하단성원들

변하지 않은것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는 동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조국이 정말 많이도 변했다. 거리도 변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변하고 산천도 변했다고. 하나 변하지 않은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령과 대중의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 조국의 절대병기이다.

그 위대한 힘이 있어 조국인민들은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부회장 송명남

땅에 일떠섰는가. 손으로 다 꼽자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다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이라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통이 크게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해나가신다.

그 구상은 곧 실천으로 이어지고있다.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보고 느낀 모든것을 우리 청년상공회 동포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

강하고 위대한 조국을 가지고있는 우리 동포들은 배심이 든든하다.

* * *

새힘을 준다

나는 1984년부터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고있다.

올 때마다 커다란 감흥을 받아안곤 한다.

이번 조국방문도 그러하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명절경축 재일본조선인총하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온 나는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제일 큰 감동을 받은것은 주체음악예술발전관이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국인민들을 추동하고 선도한것은 다름아닌 노래였다.

심장의 언어라고 하는 노래는 사람들을 위훈으로 고무하고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조국인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새 거리를 일떠세웠고 고난과 시련도 이겨냈다.

그래서 조국인민들을 보고 락천가들이라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하시며 음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하기에 조국의 음악예술은 몰라보게,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최근시기에 창작된 노래들인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조국과 나의 운명》, 《조국에 대한 노래》, 《우리는 조선사람》 등은 다 명가사, 명곡들이다. 노래들의 한구절한구절마다에서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련 군마현본부 위원장 리화우

총비서동지의 뜻과 사상, 정과 열을 느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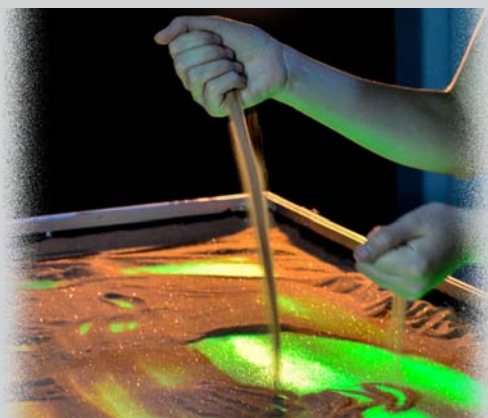
조국의 노래들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새힘을 안겨주고있다.

* * *



김규권은 조선화 《오가산의 아침》을 비롯하여 구도가 새롭고 화법이 독특한 많은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두각을 나타낸 모래그림 창작가



《형님은 우리 가문의 자랑입니다. 조국에 와서 형님의 그림을 볼 때면 절로 어깨가 으쓱해 지곤 합니다.》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학생 김영규는 사촌형의 손을 놓지 못하며 이렇게 속을 터놓았다.

김영규의 사촌형은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가로 일하고있는 공훈예술가 김규권이다.

올해 나이가 37살인 김규권은 3살때부터 미술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소학교와 중학교때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를 다니었는데 언제나 소조의 본보기였다.

그가 유년시절에 창작한 크레용화와 색연필화는 유네스코와 유엔아동기금에서 창립일을 계기로 조직한 국제아동미술전람회들에서 각각 특등과 1등을 하였다.

2000년에는 《재능있는 어린이들의 미술전람회》에 참가하여 이름을 날렸고 2002년에 진행된 전국적인 미술전람회에서도 1등을 하여 우승이란 말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미술신동의 그림솜씨는 나날이 늘어만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아주시고 치하해주시었으며 그가 평양 미술대학 조선화학부에 편입하여 공부하도록 조

치를 취해주시었다.

대학시절에도 그의 이름은 언제나 1등의 자리에만 있었다.

2010년에 만수대창작사 미술가가 된 그는 음악과 모래그림이라는 미술분야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보통 조선화, 유화, 조선보석화와 같은 미술작품들은 멈춰서있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지만 모래그림은 흘러가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영화화면이 흘러가듯이 여러 화폭에 담아 보여주는것이 바로 모래그림만이 가지고있는 특징이다.

다음해 2월 새로운 무대예술형식의 작품창작조에 망라된 그는 불과 두달만에 뿌리기, 긁기, 찍기, 지우기, 밀기 등의 형상수법과 기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구전문학작품의 내용을 담은 음악과 모래그림 《홍부와 놀부》를 내놓았다. 욕심쟁이 놀부의 특징을 비롯하여 그가 다양하고 재치있는 수법과 빠른 속사로 생동하게 형상한 이 작품은 흥미있고 인식교양적의의가 뚜렷한것으로 하여 관중의 대절찬을 받았다.

누구나 이 작품을 보면서 조선예술영화 《홍부와 놀부》의 주인공을 련상했고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2012년 5월 24살에 그는 공훈예술가칭호를



모래그림창작에 열중하고있는 김규권

받았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는데 말이 부모이지 나라에서 오만자루의 품을 들여 널 키워주었구나. 일본에 있는 할머니와 삼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모래그림의 생동성과 진실감, 예술적감화력을 더욱 돋구어주기 위해 형상수법들을 더 세련시키였다.

풍구와 배구, 음악에도 일정한 조예가 있는 그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도 미술을 배워줄 의향을 표시하였다.

글 김세현, 사진 김호

상식

고대천문학의 발상지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 벌써 천문기상현상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돌에 새기며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평양시 강동군 화강리, 순안구역, 황해북도 상원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고인돌무덤뚜껑들에 새겨진 별자리그림들은 단군조선시기의 천문

학발전상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현재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진 4 000~5 000년전의 이러한 별자리그림들은 200여개나 된다.

이러한 별자리그림들은 고대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별과 별자리들을 도형화하여 그림으로 옮겨놓을수 있을만큼 상당한 수준의 천문지식을 체득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별자리그림들에서는 둥근 구멍들을 쪼아 별과 별자리들을 나타내었는데 그 크기가 각이하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천문관계유적들로는 바빌로니아의 토지경계

비와 에짚트의 토포무덤, 마야문화의 사원 덴테라신전의 벽화 등이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토지경계비는 B.C. 12세기경, 에짚트의 토포무덤은 B.C 15세기경의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고인돌무덤의 별자리그림들은 현대의 천문도와 같이 별자리들을 생동하게 표현하였을뿐 아니라 그 년대도 단군조선시기인 B.C. 30세기전반기의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고대천문학의 발상지의 하나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 * *

상봉의 그날을 그립니다



보고싶은 삼촌, 안녕하십니까.
나이많은 리등큰아버지와 윤복순큰어머니, 삼촌어머니는 무고하신지요.
그리고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유철, 유정이도 건강한 몸으로 잘 있으리라 봅니다.
예로부터 나눌수도 바꿀수도 없는것이 피줄이라고 아버지는 신문과 방송에서 재일동포들과 관련한 소식을 들을 때면 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그때마다 6년전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부강조국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시던 삼촌의 당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기에 우리는 삼촌의 당부대로 조국에 보탬을 주는 일을 하나라도 찾아하기 위해 애쓰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자식들의 봉양만 받을수 없다고 하며 년로한 몸이지만 아직도 환자치료와 치과교정학탐구에 정열을 쏟아붓고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지난해에 치과교정치료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의료기구들을 창안하여 여러건의 발명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11살 난 저의 아들 종원이도 이름난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공부를 직심스레하더니 지난해 6월 전국소년과학탐구상모형 및 창안품전시회-2024에 창안품 《움직이는 그림》을 내놓아 소년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 직장과 동네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삼촌, 오늘 조국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과감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마감하기 위한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의 20개 군들에서 지방중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연의 재앙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는 대규모온실농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에서는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벅찬 조국의 숨결에 보조를 맞추어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있습니다.
아마 삼촌이 조국에 오시면 날마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이로 하여 몰라보게 변모되는 모습에서 더 큰 힘을 얻을것입니다.
삼촌,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건강에 류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동 61인민반 리영학조카 올림

내가 받은 꽃다발



나는 오늘까지 수많은 꽃다발을 받아왔다.
조선고급중학교 졸업식때 받은 축하의 꽃다발이며 무용발표회날에 받은 꽃다발, 후배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꽃다발과 환영의 꽃다발...
그리고보니 그동안 참 꽃다발을 많이도 받아왔다.
그러던 내가 꽃다발의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조국에 와서 한주일이 지난 어느날.
우리는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였다.
척 보기도 마음이 절로 푸르러지는 대학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안겨오는것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였다.
(야, 여기가 교원대학이로구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대학참관은 곧 놀라움과 부러움, 경탄으로 이어졌다.
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로봇들의 합창...
첨단교육을 지향하여 탐구를 멈추지 않는 교정에서 가장 놀라운것은 이 대학의 부속소학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었다.
내가 칠판에 쓴 열개의 우연수자를 20s동안에 기억하고 정확히 또랑또랑하게 대답하는 나

어린 학생이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였다.
(나도 여기서 배우고싶구나.)
교육강국, 인재강국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조국의 현실에 끝없이 공감할수록 이 세계적인 교육에 의해 우리 나라의 교육이 한계단 도약할수 있다는 확신을 나는 이 대학의 교정 그 어디서나 받아안을수 있었다.
우리는 이날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자로 준비해가는 평양교원대학 선생님들과 학생들앞에서 소박한 공연을 하게 되었다.
비록 종목은 몇개밖에 안되었지만 그림고그림던 조국의 품에 안긴 기쁨과 우리를 조국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이어진 무대였다.
공연마감에 나는 조국에 와서 보고 들은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소리높이 결심다지였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과 사상과 감정도 의지도 함께 하는 길에 가장 뜨거운 청춘을 바쳐나가겠습니다.》
열렬한 박수가 터져오르는 속에 한 녀학생이 나에게로 달려와 방긋 웃으며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꽃 세송이가 든 자그마한 꽃다발이었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조국에서 받았던 꽃다발들이 주마등

처럼 떠올랐다.
5년만에 조국을 방문한 우리에게 조국인민들이 준 꽃다발이며 조국의 친척들이 안겨주었던 상봉의 꽃다발...
얼마나 많은 꽃다발을 받아왔던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가.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조국에서 받아안은 꽃다발에는 단순히 환영의 뜻만이 담긴것이 아니였다. 그 하나하나의 꽃다발들에는 총련과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재일조선인운동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기를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향기가득 담겨져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받은 자그마한 꽃다발의 무게가 크게만 느껴졌다.
나는 나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그 동무와 말없이 약속하였다.
(조국의 대학생동무, 고맙습니다. 동무는 조국에서, 나는 이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우리의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으로 되게 합시다.)
꽃은 시일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뜨거운 맹세와 더불어 약속의 이 꽃다발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애국의 향기를 풍길것이다.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4학년 김추향

화침은 문자 그대로 불침이라는 뜻이며 침
날을 불에 달구어 해당 침혈이나 병난 곳에
찔러 질병을 치료하는 침치료방법 또는 그 치
료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민족의 향기

민족의 전통유산 화침료법

얼마전 개성시에 대한 취재
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개성시
종합병원에도 들러보았습니다.
한것은 이곳 병원의 부원장 최
유철이 전통적인 화침료법을 새
롭게 정립하고 립상실천에 구현
하고있다는 소문을 들었기때문
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화침에 대
한 이해를 깊이하게 되었습니다.
화침료법은 침을 놓는 9가지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질병치료에 널리
리용해왔습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화침료
법은 침구술의 발생초기 즉 돌
침후에 금속침이 출현한 때부터
우리 인민의 생활관습과 기후
환경에 의해 생긴 응저와 같은
질병치료에 리용하여왔습니다.

옛 문헌에는 화침을 쓰는데
는 부저가락 비슷하게 해서 한
끝을 뾰족하게 갈되 대추씨치
럼 둥글면서 매끈하게 하며 이
것을 등불에 달구되 기름에 몇
번 담갔다 꺼내면서 빨강계 달
구어 현대밀창가까이에서 찔러
준다고 하였습니다.

화침은 고대시기 응저, 비

중, 여러가지 눈질병, 피부질
병에 널리 리용되었지만 보기
가 끔찍한 약점을 가지고있습
니다. 더우기 근대에 와서는 신
의학의 영향으로 각종 항생제,
외과적수술들이 질병치료에 도
입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민
간에서만 쓰이였습니다. 그것
마저도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책동의 후
과로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국에서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귀중한 유산인 고
려의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화
침료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게 되었습니다.

최유철이 이 연구에 달라붙
은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학을 졸
업하고 이 병원의 고려의사로
된 그는 침구학분야에서 화침료
법이 미개척이나 다름없음을 직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의 고전침구문헌자
료와 화침치료의 세계적추세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그
는 옛 화침료법의 특징을 알게

되었으며 선조들이 남긴 유산
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결심
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
었습니다.

그는 화침의 적용기전에 관
한 기초연구부터 파고들었습니
다. 많은 의학과학연구기관들
을 찾아다니였고 권위있는 의
사들의 방조를 받으며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였습니다. 그 하
많은 날들에 맥을 놓은적도 있
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연구과제를 포기한다면 선조들
의 귀중한 유산이 옛 문헌의 글
줄에만 남아있게 될것이라는 생
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악한 노력끝에 화침
의 적용기전에 관한 기초연구
로 되는 《화침자극이 유기체
의 비만세포분포에 미치는 영
향》을 비롯한 적지 않은 연구
과제를 완성하였으며 우리 나
라에서의 화침의 기원과 력사적
발전과정 등을 문헌적으로 고증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구결과를 국
내외의 학술잡지들에 발표하고
수십차례에 걸치는 전국적인 학
술토론회와 대학강의들에 출연
하여 화침료법을 널리 보급하
는 한편 도서 《화침의 립상》



도서 《화침의 립상》

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았습
니다.

이 나날 그는 또 하나의 연구
과제를 놓고 고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달군 일반침을
혈에 꽂을 때 자주 구부러져 환
자들에게 아픔을 주었기때문이
였습니다. 그는 8년간의 사색
과 탐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전
문침인 고려화침을 만들어내
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고려화침
은 우리 나라에 흔한 금속재료
로 만들고 호수별로 규격화한
것입니다.

그후 그는 이 재료를 기초
로 하여 피부용화침, 이비인후
용화침을 련이어 내놓고 전국
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도입하였
습니다.

지금 그가 연구완성한 화침
료법은 수많은 만성질환환자들
은 물론 난치성질환환자치료에



최유철(가운데)

서 높은 완치률을 보이고있습
니다.

동포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
에서는 이 화침료법만이 아니라
선조들이 창조한 전통유산을 빠
짐없이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새

로운 고려치료방법들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들이 계속되고있
습니다.

글 강은순
사진 리철



장기적인

《거궁입마필사환》

말이 자기의 궁자리에 들어가 놓이게 되
면 형세가 불리해진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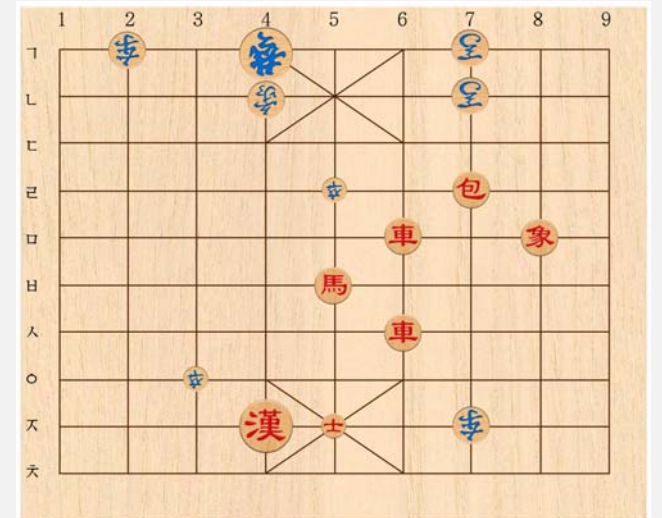
말이 궁자리에 들어가는것은 부득이한 정
황에서 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궁성방어체계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지어는
통장까지 될수 있는 조건이 많다.

이런것으로 하여 구멍말은 비정상적이므
로 이러한 조건을 미리막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27)에 대한 답

리1말ㄷ3, ㄱ4궁ㄴ4, ㄷ3말ㄱ2, ㄴ4궁ㄱ4,
ㅅ3차ㄱ3, ㄱ4궁ㄴ4, ㄱ3차ㄴ3, ㄴ4궁ㄱ4,
ㄴ3차ㄴ4, ㄴ5사ㄴ4, ㄱ2말ㄷ3, 《장훈》

장기수풀이 (28)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강서세무덤

강서세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벽화들의 색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생생하여 고구려벽화무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으로 알려져있다.

강서세무덤은 3개의 무덤으로 때를 이루고있다.

이 무덤때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3기의 돌칸흙무덤이 정삼각형으로 배치되어있다. 맨 앞쪽에 놓여있는 제일 큰것이 강

서큰무덤이고 그뒤에 나란히 놓인 두 무덤가운데서 서쪽의것이 강서중무덤, 동쪽의것이 강서작은무덤이다.

큰무덤과 중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벽화에 그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은 환상적인 동물이기는 하지만 실지 구렁이, 범, 닭, 거북기같은 동물들의 구체적인 속성들을 자세히 관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기때문에 매우 생동하고 힘이 있어보인다.

조선화의 기본표현수단인 선을 능숙하게 쓰고 거기에 선명한 색들을 칠하였으며 일부는 립체감까지도 나타내고있다.

강서세무덤의 벽화는 고구려 회화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걸작일뿐 아니라 세계문화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오늘 강서세무덤은 국보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글 강소현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사신도로 유명한 강서세무덤 전경

흙보살이 고기를 먹다

어느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있었다.

아버지는 얼마전에 안해와 딸을 병으로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는 이 모든 불행이 귀신의 조화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흙으로 만든 보살 몇개를 구해서 집안에 가져다놓고는 매달 초하루날과 보름날이 될 때마다 어김없이 향불을 피우고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제물을 놓는 상우에는 항상 갖가지 음식이 가득차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집안의 재산과 식량이 제사놀음에 거의 바닥이 나게 되었던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사이에는 이 일로 하여 다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하였다.

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괴벽을 고쳐드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살수 있을가 하는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면서 아들에게 고기를 삶아서 제상에 올려놓으라고 당부하였다. 아버지의 말대로 아들은 고기를 삶아 제상우에 올려놓았다. 김이 문문 나는 고기를 한동안 바라보던 아들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상에 마주앉아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제상에는 빈그릇들만이 덩그렇게 남게 되었다.

음식을 료정낸 아들은 이번에는 흙보살들을 번쩍 들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을 내기 시작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흙보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누가... 누가 보살님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버지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물었다.

그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태연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시킨대로 고기를 삶아 제상우에 올려놓았는데 글썽 보살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서로 고기를 먹으려고 치고 받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박산나고만거예요.》

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어 어성을 높여 아들을 꾸짖었다.

《허튼소리 그만해라. 이 보살들이야 흙으로 만든건데 어떻게 고기를 먹으며 또 어떻게 싸움을 한단 말이나?》

《흙으로 빚은 보살이어서 고기를 못먹는다면 왜 밤낮 고기를 차려놓는거예요? 또 흙으로 만들어진 저따위 보살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저를 보호해줄수 있단 말이에요?》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입을 딱 벌린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글 김영은

유모아

통쾌한 조롱

권세있는 량반이 어느날 한 중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내기를 해보세.》

중은 량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가 먼저 말을 꺼내도록 하였다.

량반은 기다렸다는듯이 《그대의 얼굴을 보니 돼지같군.》라고 하였다.

중은 그 말을 듣고 태연히 말하였다.

《제 보기에는 량반님은 부처님

같사옵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은 량반은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중은 《돼지의 눈으로 보면 만물이 돼지같아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같아보이는 법입니다.》라고 점잖게 대답하였다.

* * *



모란봉의 봄

예로부터 명승지로 이름난 모란봉은 평양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대동강의 오른쪽연안에 솟아있다.

모란봉은 그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다.

대동강기슭을 따라 길게 놓여있는 금수산에 최승대를 중심

으로 서로 잇달려 둥글둥글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도 금시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고 하여 모란봉

으로 불리웠다.

산의 북쪽에는 룡남산, 남쪽에는 만수대 등 낮은 구릉들이 있으며 동쪽비탈면에는 깎아지른듯한 절벽인 청류벽이 길게 놓여있다. 그밑으로는 대동강의 맑은 물이 흐르고있다.

강물을 사이에 두고 모란봉의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는 룡라도가 길게 자리잡고있다.

기묘하고 조화로운 땅생김, 짙은 록음, 철따라 곱게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 그 모든것이 하나로 어울려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특히 사방으로 탁 트인 을밀대의 봄경

치나 밝은 달이 등실 떠오를무렵에 펼쳐지는 부벽루의 풍경은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뛰어나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모란봉에는 180여종의 식물이 퍼져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향나무 등 바늘잎나무와 피나무, 아카시아나무, 단풍나무 등 넓은잎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있으며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 과일나무들도 많다.

모란봉에는 꿩, 딱따구리, 꿩꼬리, 부엉이, 다람쥐 등 여러종의 동물들이 있으며 해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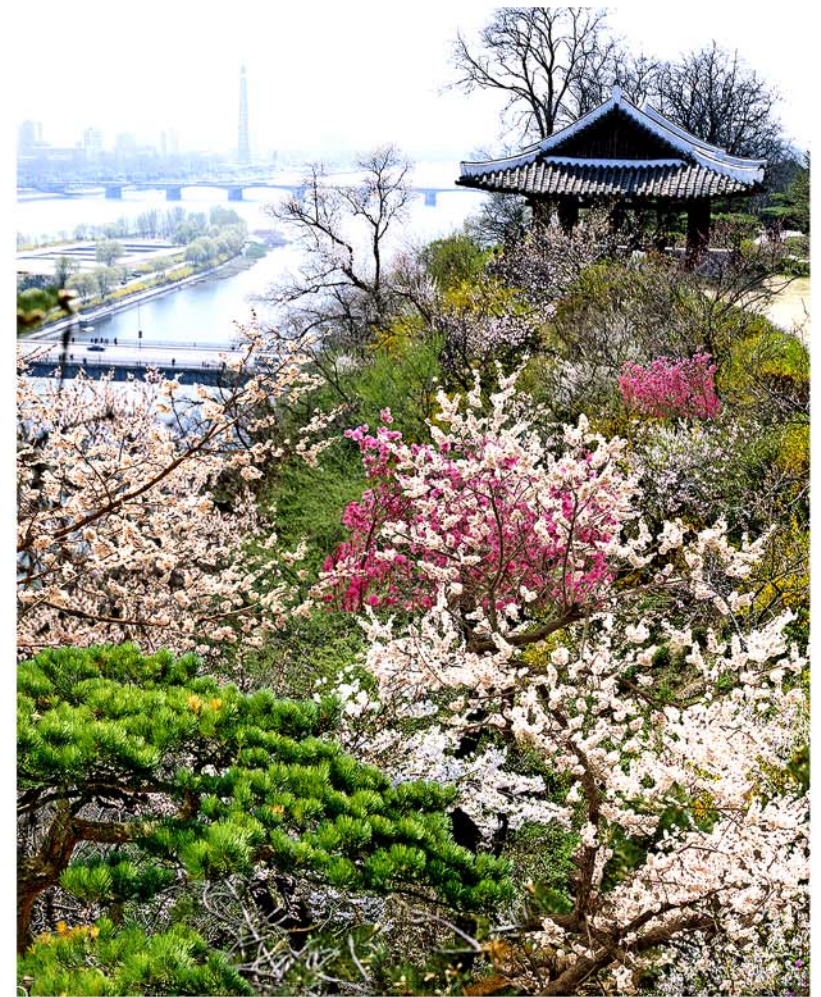
70여종의 새들이 날아든다.

경상골의 이름난 폭포인 모란폭포를 비롯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크고작은 폭포들도 모란봉의 경치를 한껏 돋군다.

모란봉에는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적도 많다.

청류벽회화나무, 모란봉회화나무화석 등 천연기념물들이 있으며 내성과 외성 그리고 을밀대, 최승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현무문 등 고구려시기 유적들이 있다.

을밀대와 최승대는 전쟁때 외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



휘하던 장대였고 현무문과 칠성문 등은 성문이였다. 잘 다듬은 돌을 거의 수직으로 재치있게 쌓아올린 울밀대의 축대는 고구려시기 인민들의 높은 건축술과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을 그대로 전해주고있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시기 외래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쳐물리치고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지켜낸 선조들의 애국적투쟁을 길이 전하는 《울밀장군》에 대한 전설과 《행복의 문》 칠성문에 대한 전설 그리고 옛날을

밀선녀들이 경치좋은 이곳에 내려와 놀았다고 하는 《울밀선녀》에 대한 전설 등 수많은 전설들이 있다.

오늘날 모란봉에는 옛 고적들과 잘 어울리게 루정, 정각들이 많이 건설되고 곳곳에 민속놀이터, 다양한 문화휴식터들이 꾸려져있어 평양의 명승으로서의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더 드러내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성철, 안철룡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